太平洋전쟁책임 아직 끝나지 않았다

對日補償청구운동 확산

<1>

일본의 전후처리는 결코 끝나지않았다。광복 45년의 해에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는 한국인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목소리가 새삼스레 높아가고, 최근 일본의 지식인61명이 일본국회에 對韓공식사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것도 그때문이다。한국인 피해자들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태평양전쟁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피해진상을 밝히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부주】

◇일제에 의해 남방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끌려갔다가 전범으로몰려 10년이상 복역하고 풀려난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同進會회원들(왼쪽부터 李善根·文泰福·李鶴烈·金完根씨)。가운데 두사람은 처음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됐다。

누명쓴 戰犯 〈上〉

1990. 03. 30.

한국인百48명…23명은 處刑돼

전쟁중에 강제징집「포로감시」惡役맡아

抗辯한번못하고 囚人생활…日선 발뺌만

도대체 한국인이 어떻게 해서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의 전범으로 몰려 사형당했는지 그 피울음같은 항변을 30년이 넘도록 계속해왔으나 일본정부는 물론 한국정부도 못들은체하고 있다。

일본을 위해 일하다가 전범이 됐다고해서, 고국으로돌아오지도못하고 일본땅에 내팽개쳐진 同進會회원은 생존자 36명과 유족 12세대를 합쳐 38세대로 확인되고있다。그동안 일본정부를상대로 석방청구소송과 보상요구등 메아리없는 외침을 계속해오다 급기야 지난 6월 한국출신 군속들의 모임인 同進會(회장 文泰福)가 한국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작성해 동 청원서를 각 정당에 보내는 한편 일본정부를 상대로 B·C급전범으로 몰려 사형처벌을 받은 한국출신 군속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누구이며 왜 전범이 됐는가。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42년 동남아지역 연합군포로수용소의 감시원으로 징집됐다가 종전후 B·C급전범으로 몰려 현지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당시 49개소에 설치된 각 수용소에는 연합군포로 3만6천여명이 수용돼 있었는데 이들 포로들에 대한 학대가 전후 전범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다。

전범재판은 A·B·C급으로 나누어 재판을 받았는데 A급전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된 일본인은 7명에 불과했지만, B·C급으로 몰려 처형된 한국인은 23명이나 됐다。

B·C급은 특정 지역에서 포로감시원으로 징집된 군속들。이들중 14명이 사형선고를 받아 이국땅에서 처형됐고 1백15명이 10년이상의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제14방면군 병참총감이었던 인50원이란 급료도 못받았다。자신들의 은혜도 모른채 20세전후의 한국청년3천명은 2개월후인 8월19일9척의 선단에 나누어타고 2주간의 항해끝에 태국(8백명) 말레이시아(8백명) 자바지역(1천4백명)에 분산된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배속됐다。

이렇게 모집된 3천여명의 청년들은 42년6월12일부터 42년6월 조선땅에서 모집이란 미명하에 사실상 강제징집된 소위 포로감시원은 모두3천여명。전범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20년으로 감형돼 싱가포르·창이형무소와 일본 스가모형무소를 거쳐 56년 풀려난 李鶴烈씨(65·히바리카오카市)는 사실상강제로 끌려가 보초도 제대로받지못하고 연옥같은 누명까지썼다고 말했다。그는 17세때 「납방군라는 『戰陣訓』이 이들에게 주입됐고, 이는 훗날 이들을 비운으로 몰고가는 함요인이 됐다。자신들의 은혜도 모른채 20세전후의 한국청년3천명은 2개월후인 8월19일9척의 선단에 나누어타고 2주간의 항해끝에 태국(8백명) 말레이시아(8백명) 자바지역(1천4백명)에 분산된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배속됐다。

이들에게 부여된 일부는 정글의 높속에서 식량의 절

정부는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라 /